

전영애의 ‘여백서원에서’



이루지 못한 꿈의 간수 -괴테의 ‘나우시카아’

11년 궁정생활 끝에 매우 절박해진, 오래된 소망을 좇아 괴테는 “마흔이 되기 전에 공부 좀 해야겠다”고 이탈리아로 달려갔고, 2년을 머물며, 본인이 제2의 탄생으로 부를 만큼 많은 경험을 하고 배웠다. 이탈리아 본토의 끝, 나폴리에 이르러서는 아직도 용암이 흐르는 베수비오 화산에 세 차례나 올랐으나, 시칠리아행만은 많은 망설임 끝에 결행한다. 당시에는 매우 모험적인 여정이었다. 바다 위에서만 나흘 길, 심한 뱃멀미를 하며 갔다.

방랑대해를 체험하고, 마침내 시칠리아의 풍경을 보자 괴테가 처음 한 일의 하나가, 서점으로 달려가서 ‘오디세이’를 산 것이었다. 이탈리아어일 수밖에 없는 그 책을 동행했던 화가 친구에게 번역해가며 읽어주려고 말이다. 여러 문화가 교차했고, 특히 고대 그리스의 정복지로서 그리스적 면모가 선했었던 시칠리아의 풍광, 자주 협준한 바위 해안들을 보며 어려서부터 친숙한 긴 유랑의 이야기 ‘오디세이’의 무대가 바로 거기라고 느껴졌던 것이다. 바로 그 현장인 것 같은 곳에서 그 장려한 서사를 친구에게도 들려주고 싶었던 것.

시칠리아를 가로 질러 가 닿은, 아름다운 해안 중에서도 유난히 아름다운 타오르미나의 바닷가, 고대 그리스 극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괴테는 거북 오렌지

나무 위에 올라 앉아 ‘오디세이’를 나름으로 압축하는 극작품을 만들어 볼 생각을 한다. 한 친구에게 읽어주며 나누는 것으로 부족했던 듯 ‘오디세이’를 자기 글로 전해 볼 생각이었다. 긴 서사시에서 괴테가 눈여겨본 부분은 오디세우스의 긴 유랑이 마감되고 고대하던 귀향예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변곡점. 그렇게 해서 취해진 소재가 나우시카아이다.

나우시카아는 빨래놀이를 나온 공주로 빨래를 마치고 공놀이를 하다가 부서진 난파선처럼 별가승이로 해안에 쓸려 와 있는 오디세우스를 발견하고 빨래한 옷을 그에게 입힌다. 그러나 공으로 돌아가면서는 사려 깊게도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여 그 낯선 남자를 마차에 태우지는 않고 수레를 뒤따라 걸어오게 한다. 오디세우스는 그가 궁정과 왜 당차 왕도 첫눈에 사위 삼고 싶어하는 출중한 인물이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거절하며 귀향을 도와 달라고 한다. 그럼에도 왕은 후한 대접을 하며 연회를 베풀고 경기를 연다. 경기에서는 그의 용맹함이, 연회에서는 오디세우스 자신이 들려주는 기나긴 모험담, 그 고난의 오디세이 이야기가 펼쳐진다. (용승한 후대와 환승으로 그 페아키아인들의 땅의 묘사는 서구문학의 최초의 유토피아의 기술로 일컬어진다.)

오디세우스는 떠나고 나우시카아는 남는다. 원작 ‘오디세이’에서 그녀는 주인공 급의 인물은 아니어서 특별한 성격의 부각이 없다. 그런데 괴테는, 이방인이 도착함으로써 일어나는 ‘여성적 정서의 동요’에 주목하여 (설려에의 편지 1798.2.14) 나우시카아의 심리를 조명하는 비극을 한 편 써보려 했다. 그러나 과욕이었던 듯 오래 붙들고 있었건만 시작만 해놓고 별로 진척되지는 못했다. 또 호메로스가 쉽사리 그만한 격조로 압축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이지 긴 서사시의 핵심 부분을 붙들었다. 시칠리아를 떠나 다시 나폴리로 돌아오며, 또다시 나흘간 뱃멀미에 시달리며, 협한 물목 ‘스킬라와카립디스’도 지나며, 괴테는 작품의 상세한 구상을 기록해 두었다. 미완성 작품은 무엇보다 착목한 지점이 놀랍고, ‘이탈리아 기행’에다 기록해놓은 그 상세한 구상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겨 ‘오디세이’를 다시 파게 만든다.

‘파우스트’에야 60년을 매달렸지만 괴테라 한들 무슨 수로 꿈이며 계획을 다 이루겠는가. 그러나 때로는 남겨진 꿈의 편린 만으로도 빛을 발하는 것들이 있다. 절실하게 나누고 싶던 마음이 전해지고, 또 남은 것이, 흔적이어도, 매우 크고 아름다운 것을 가리키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의료칼럼



박백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화기병원장

추석은 풍성함을 상징하는 민족의 대명절이다. 하지만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을 마음 놓고 즐기다 보면 각종 소화기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수가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명절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장염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별한 위생관리를 통해 예방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또한 명절에는 과식으로 소화불량이 흔하게 나타난다.

기름진 고기류(갈비찜, 찜닭 등)와 전 등 평소보다 고열량, 고지방 음식을 과식하게 되면 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소화불량과 속쓰림,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명절 연휴 직후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상당수가 소화기 질환을 호소한다. 명절 음식으로 인한 일시적 소화불량은 대개 휴식과 식이조절로 호전되지만 증상이 오래가거나 흉통 및 속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위염, 위궤양, 담석증 등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장염은 대체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일어난다. 명절에는 여러 가족·친지

들이 모이는 만큼 세균, 바이러스 등에 노출되기 쉽다. 한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경우가 잦아 음식을 보관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오염도 쉽게 일어난다.

특히 설 명절에 비해 기온이 높은 추석에는 세균, 바이러스 번식이 더욱 왕성할 수 있어 음식을 보관뿐만 아니라 조리도구 위생,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풍성한 한가위에는 과식의 유혹도 주의해야 한다. 과식은 일시적인 위 운동기능의 저하를 가져와서 소화불량 증상을 발생시키며 튀기거나 볶는 조리법이 많이 사용되는 명절음식은 열량이 높고 기름기가 많아 소화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기관 기능에 부담을 준다. 따라서 한번에 많은 양 보다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게 좋다. 고기류 등은 소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기름진 음식에 탄산음료와 술을 곁들이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신 고기와 전 위주 식단에 과일과 나물 등을 곁들이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체한 느낌이 들 때 민간요법으로 바늘로 손을 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며 바늘로 인한 2차 감염 우려가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명절 스트레스 역시 소화기 질환의 원인이 되곤 한다. 소화기관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능장애로 인한 속쓰림, 상복부 팽만감, 구역(또는 오

심) 등이 나타난다. 일시적인 소화불량은 쉽게 증상이 완화되지만 자주 반복되면 만성 소화기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소화불량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에 의존해 소화제를 찾기보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가벼운 산책과 같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다. 소화기 질환이 발생했다면 올바른 대응책을 숙지해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염의 증상은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이다. 특히 구토,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탈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마셔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 염증이 일어난 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미음이나 죽 같은 음식을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회복을 돕는 방법이다.

이 때 설사를 멈추기 위해 지사제를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독성을 가진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장 내에서 계속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화불량이 심화되어 위장관 질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증상 완화를 도와야 한다. 포만감이 계속 지속되면 위장관운동 촉진제를 통해 소화기관의 기능을 돕는 편이 좋다.

구역이 심하게 나타나면 진경제(내장기관 평활근의 비정상적인 수축과 경련을 진정시켜 통증을 줄이는 약물)를 복용해 비정상적인 위장관을 가라앉혀야 한다. 역지로 음식물을 게워 내는 행동은 위점막 손상과 출혈, 전해질 불균형을 조장할 수 있어서 피해야 한다.

달빛 푸른 밤의 축제

만 승패가 갈려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바로 한가위 날이었다.

달은 신성한 등불이자 시간의 표식이었다. 둥근 달이 하늘에 걸리면 인간은 둥근 원을 그리며 그 빛을 몸에서 새겼다. 여인들은 달빛 아래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를 추었다. 원을 그리며 돌고 노래하며 뛰는 몸짓은 마치 달의 모양을 닮아 있었다. 그것은 춤 이상의 춤, 인간이 우주의 질서와 어가를 맞대는 제의이며 축제였다. 달과 인간, 하늘과 땅이 어우러지는 한밤의 축제는 지금도 우리의 무의식 깊숙이에서 강물처럼 흐르고 있을 것이다.

한가위의 또 다른 풍습은 달맞이다. 사람들은 마을 어귀의 언덕이나 뒷산에 올라 둥근 달을 맞이하며 소원을 빌었다. 가을결이가 무사히 이루어지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세대를 거슬러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둥근 달은 그 소원을 받아 안는 거대한 그릇이었다. 하늘에 차오른 크고 환한 달에 마음을 비추는 순간, 저 너머 보이지 않는 어떤 것과도 무한히 맞닿을 수 있었다.

한가위는 늘 달과 함께 이어져 왔지만 그것은 역사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내게도 잊을 수 없는 달밤이 있었다. 사춘기의 어느 해, 전화도 드물고 교통도 불편하던 시절이었다. 그 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문득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얼굴이, 내가 몰래 상상하던 순간과 꼭 닮은 표정으로 달빛 속에서 있었다. 내 마음이 그랬듯 그도 그러했을,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둥구 박, 들판에는 벼이삭이 노랗게 익어가고, 그 위

로 희고 푸른 달빛이 담백 쏟아졌다. 그 애가 타고 온 자전거, 머리에 쓴 교모 위에도 달빛이 부드럽게 번졌다. 그 사이로 겨우 몇 마디의 대화가 오갔을 뿐이다. 그러나 말보다 더 무수한 것들이 이미 달빛 속에 스며있었다. 그래서일까, 그 작은 영혼들의 서성임은 지금도 환히 빛난다. 그 밤의 달빛은 말 없는 마음을 대신해 오래도록 빛나 주었다.

인간의 삶은 결핍을 향한 끝없는 운동이라고 한다. 우리는 늘 모자란 것들을 채우려 애쓰고 빈 마음을 메우려 꿈을 꾸다. 그러나 한가위 달밤은 예외적인 순간이다. 그날의 달은 결핍이 아닌 충만, 갈증이 아닌 화해, 단절이 아닌 연결의 상징이었다. 풍요와 완성, 순간과 영원, 사랑과 그리움을 동시에 품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온전한 충만함이었다. 서로 손을 맞잡고 원무를 추며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알 수 없는 마음을 꼭 채워 주었던 것처럼, 달은 흩어진 마음을 모아 하나의 원으로 만들어 주었다.

다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다. 더 높고 푸른, 더 넉넉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위해 하늘의 달도 열심히 제 소임을 다하는 중이다. 마치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날마다 조금씩 늘리고 부풀리며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어둠을 밝히는 오래된 등불로, 결핍을 넘어 충만으로, 시간과 영원을 잇는 가장 순결한 약속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그 약속의 밤, 크고 환한 달빛 아래 모두가 함박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기를. 너와 나, 우리가 만나는, 달빛 푸른 밤의 축제가 되기를!

社說

흔들리는 챔피언스시티 사업, 차질 없어야

광주시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인 ‘울 뉴 챔피언스시티’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챔피언스시티 사업은 복합쇼핑몰 ‘더 현대 광주’와 4000세대가 넘는 주상복합아파트 조성이 핵심인데 주상복합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한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마저 발을 뺀기 때문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들 1군 건설사들이 최근 차례로 불참 선언을 한 것은 수익성에 대한 불안이 작용한 탓이다. 먼저 포기를 선언한 포스코는 표면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리스크 회피 차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대우건설마저 불참을 결정한 것을 보면 수익성을 장담하지 못한 것이 사업 포기 배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평당 3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고분양가에 대한 부담으로 분양을 장담하기 힘들데다 공사완공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는 책임준공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챔피언스시티 시행사는 분양을 내낸 상반기로 연기하고 추가로 1군 건설사 3~4곳과 시공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난제가 쌓인다는 점이다. 우선 시행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 현재도 매일 2억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 비용 부담이 커져 사업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구조가 된다.

사업자(시행사)가 광주시에 내기로 한 3000억원의 공공기여금도 차질이 생겨 복합쇼핑몰에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 복합쇼핑몰은 현대백화점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라 당초 계획대로 완공한다고 하지만 주변 교통난 해소에 공공기여금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사업자의 자금난이 연쇄적으로 복합쇼핑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4000세대가 넘는 주상복합 사업을 놓고 사업자의 수익성과 대규모 물량 소화라는 시장성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고 ‘노잼 도시’ 탈출의 핵심인 복합쇼핑몰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일이다.

광주시는 사업자와 머리를 맞대고 챔피언스시티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안공항 개항’ 여행업계 절규 외면할텐가

광주·전남지역 여행업계의 무안공항 재개항 요구가 절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로 무안공항이 폐쇄된 이후 고사 위기에 처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잇그제는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발 무안공항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무안공항은 호남권 허브공항으로 연간 2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10개월 동안 공항이 폐쇄되면서 호남권 1000여개 여행사와 직원 및 가족 7000여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여행업계는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에 재개항 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변화가 없자 정부를 상대로 하소연에 나섰다.

무안공항이 힘들다면 광주공항에 임시로 국제선을 띄워달라는 요구도 했지만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만 밝히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여행업계는 단순히 무안공항 재개항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재개항 전체 조건으로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을 비롯해 진상구명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무작정 무안공항을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호남지역민들 입장에서도 무안공항의 재개항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무안공항을 두고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이용함으로써 겪는 불편과 경제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최장 10일에 달하는 이번 추석 연휴를 손놓고 보아야 하는 지역 여행업계의 눈물과 절규가 어느 때보다 안타깝게 다가온다. 모든 해법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언제까지 이들의 절규를 외면할텐가.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무안공항을 정상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無等鼓

‘셰익스피어 휴가’ (Shakespeare Vacation)라는 낯선 단어를 처음 접한 건 칼럼리스트 김경의 책 ‘셰익스피어 베케이션’ (2009)을 통해서였다. 패션잡지 에디터로 근무하며 칼럼집 ‘뷰티풀 몬스터’, 인터뷰집 ‘김훈은 김훈이고 싸이는 싸이다’ 등을 펴냈던 그는 운중계 1년의 휴가를 보내고 난 후 동명의 책을 펴냈다. 그의 휴가는 ‘독서 여행’이었다.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읽으며 포르투갈 리스본을 여행하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바람의 그림자’의 흔적을 쫓았다.

명절과 벽돌책

인상적인 책 제목은 영국 전성기를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서 유래한다. 여왕은 신하들에게 3년에 한 번 꼴로 유급 독서 휴가를 주고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셰익스피어 작품 중 5편을 정독한 뒤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세종 역시 ‘사가독서’ (賜暇讀書) 제도를 도입해 촉망받는 젊은 선비들에게 긴 휴가를 주어 편안하게 책을 읽게 했다. 독서 휴가는 1~3년이었고 세종은 독서에 필요한 비용과 음식 및 의복까지 내려 격려했다고 전해진다. /김미은 여문매체부장 mekim@

기 고



김향남
수필가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속담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다. 오곡이 무르익어 창고마다 곡식이 쌓이고, 산과 들에 과실이 풍성하게 열리는 계절적 전환에 대한 노래이며, 동시에 인간의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순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다.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한가위’라 부른다.

‘한가위’라는 말의 기원 속에는 인간이 달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온 오래된 기억이 숨어 있다. 고대사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차오르는 만월은 어둠을 밝히는 고마운 존재였다. 맹수나 적의 위협을 분간하기 어려운 깊은 밤에도 달빛은 사람들에게 안도와 기쁨을 주었다. 만월은 자연스레 축제의 시간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환한 달이 뜨는 8월 보름은 으뜸가는 명절로 자리 잡았다.

신라 시대, 여인들은 음력 7월 보름부터 8월 보름까지 두 패로 나뉘어 갈땀을 겨루었다. 두 달 동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배를 짜며 정성을 다해 마지막 승부를 갈랐다. 이긴 편은 축제를 주관하고 진 편은 음식을 장만해 함께 즐겼다. 경쟁이 곧 축제의 서막이 되었지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에 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